



## 생생한 주민 목소리 행정에 반영

민원·영농현장·재해위험지역 등 지속적 방문  
주민들과 공감대 확산·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주력

김제시청 산악회 회장으로 회원 100여명의 건강과 친목을 다져오고 있는 박상문 교월동장이 교월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튼튼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상문 교월동장

박상문 동장은 김제시청 산악회 산악대장 및 총무 등의 직책을 맡아 내실 있게 살림을 꾸려 청내 제일의 취미클럽으로 격상을 시킨 뒤 2015년 1월부터 산악회장을 맡아 회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보살피고 있다.

평소 주민과의 공감대 확산과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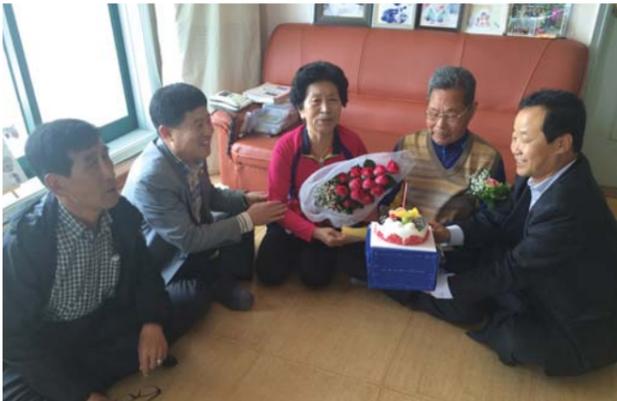
는 박상문 교월동장은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은 물론 민원현장, 영농현장,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취약계층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동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일동장제', '복지동장제', 'Go! 민속로의 날' 및 '마을별 순회간담회' 등의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5년에 총 150여회에 이르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고 2016년 올해도 현재까지 40여회에 이르는 현장행정을 추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주민센터는 행정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문 교월동장은 "영농철인 5~6월은 영농현장 중심의 현장행정 추진하고 이후 7~8월에는 관내 52개 마을을 순회하는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며 산악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